

'전남 지방정원 3호' 구례 지리산정원 31일 개장

순천만·죽녹원 이어 3번째 지정...숲 정원으로는 전남 최초 주제별 5개 정원·편의시설 등 갖춰...내년부터 유료화 전환

전남 최대의 산림 복합 휴양공간인 구례 지리산정원이 전라남도 지방정원 제3호로 지정돼 오는 31일 개장식을 갖는다.

구례군은 지난 6월 17일 전라남도 지방정원 등록 신청 결과,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리산정원은 순천만 정원(지방정원 1호)·담양 죽녹원(지방정원 2호)에 이어 도내 세번째 지방정원에 등록됐으며, 특히 숲 정원으로서는 전남에서 처음이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10ha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이고, 정원관리 전담 부서 설치, 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차장과 편의시설 조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시사가 지정 등록한다.

군은 지방정원 신청을 위해 광의면 일대 193ha

규모의 지리산 정원(야생하테마랜드·지리산 자생식물원·구례생태숲·숲속수목가옥 포함) 중 10.8ha를 지방정원 구역으로 정하고, 주제별 정원 5곳을 조성했다.

주제별로 구례의 하늘을 품은 '하늘정원', 밤하늘 별빛을 수놓은 '별빛숲정원', 군민 화합을 상징하는 '어울림정원', 숲속 체험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와일드정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라이빗정원'이다.

이중 '하늘정원'은 기존 경사 지형 및 시설물을 활용해 하늘을 향해 열린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야생화타워 및 하늘브릿지, 캐스캐이드, 암석원 등이 설치되어 웅장한 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지리산에서 바라본 밤하늘 별빛을 모티브로 구성한 '별빛숲정원'에서는 숲속 테라스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밤에는 다채로운 조

명으로 연출되는 낭만적인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어울림정원'에서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직접 식물을 가꿀 수 있으며,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구현된 '와일드 정원'에서는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숲속수목가옥 여유 부지를 활용한 '프라이빗 정원'에서는 더욱 편안한하고 아늑한 숲 체험이 가능하다.

지리산정원 주변에는 탐방안내소, 유라온실,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시설, 읍수대, 야외카페 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세심하게 준비돼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는 지리산정원은 올해까지 무료 관람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비지원을 받아 정원 내 지리산 상징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원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선진국형 산업이다"면서 "지리산정원과 구례수목원, 산수유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관광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전라남도 3호 정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정원의 5개 정원 중 하나인 어울림 정원 전경.

150년 전 아낙네들의 휴식처 '옛 빨래터' 복원

여수시 화정면 백야마을 마을 쉼터·화합 공간으로

동네 아낙네들이 시냇가에 모여 빨래하며 도란 도란 얘기꽃을 피우던 옛 빨래터의 모습. 빛바랜 흑백사진이나 남아있는 추억의 장면으로 사라진 지 오래이다.

여수시 화정면 백야마을의 150여년 된 빨래터(사진)가 최근 새롭게 복원됐다.

화정면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흥물로 방치돼 있던 빨래터를 마을의 쉼터이자 화합의 상징적 공간으로 보존하는데 뜻을 같이해 옛 모습으로 복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옛 빨래터가 활성화 되던 당시의 이곳은 주민들이 바닷일을 끝내고 씻거나,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던 휴식처와 같은 곳으로 현재의 카페와 같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마을에 상수도 사업이 전개된 이후 치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다가 급기야 이곳이 어떠한 공간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황폐스럽게 변해버린 것이다. 평소 이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은 마침내 빨래터의 의미를 되살려 동



네의 발전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복원하는데 공감하게 됐다.

이로써 빨래터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는 조상의 슬기로운을 일깨우게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옛 정취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아울러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도선 화정면장은 "이번 빨래터 복원을 통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휴식과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조상들의 옛이야기를 담아 발전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5년 연속 선정

30억 투입 356곳에 태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 에너지원 설치 지원

구례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구례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상가 등에 태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81개소에 사업을 완료했고, 2024년에는 44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국비 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관내 일원 356개소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군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4월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6월 공모에 신청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심층·총괄평가를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가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면서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달마사에 道 유형문화유산 지정서

참회 서술 불교 의식집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 소장

여수시가 최근 여수 달마사에 소장된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에 대한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서를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에 전달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정기명 여수시장과 달마사 도해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장실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은 미타도량에서의 참회를 서술한 불교 의식집으로 1474년(성종 5) 왕실 발원 판본을 본보기 삼아 1572년(선조 5)에 다시 새긴 번각본으로, 지난 8월 8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의 보관상태가 양호해 권말에 기록된 시주질·연화질·간기 등으로 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며, 임진왜란 이전 조선 불교문화사와 인세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섬진강 둔치에 18홀 파크골프장 개장

진월면 월길리 일대 1만 9천㎡ 지역민 건강증진 등 활력 기대

광양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이 지난 11일 개장했다.

광양시는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은 진월면 월길리 2 일원 1만 9000㎡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임시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생활스포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가 광양에서도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인사말씀 및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 시타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파크골프는



광양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이 지난 11일 개장했다. 정인화(왼쪽 세번째) 광양시장 등이 개장식에서 시타를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최근 인기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면서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이 광양시 파크골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는 이번이 개장한 파크골프장 외

에 광양읍 동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올해 말 동부권 파크골프장이 준공되고 내년엔 동천 파크골프장이 추가 조성되면 2025년에는 광양시에 총 4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 산악지 '국가지점번호판' 31곳 추가

등산로 등 조난·응급상황 대응...총 233개 운영

고흥군이 관내 산악지역에서의 조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31개를 신규로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건물이나 비거주지역에서 조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에 있는 국가지점번호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제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글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해 만든 위치 정보체계다.

군은 2014년부터 국가지점번호판 총 233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는 방문객이 많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운암산 등산로 및 임도에 25개, 동일면 삼암산 일원에 6개 등 총 31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 운암산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고흥군 제공>

곡성 유아·초등생 위한 숲·생태 교육

곡성미래교육재단, 인성원서 마을 교육과정 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즉흥적으로 새롭게 조성된 숲 교육장 인성원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아 숲·생태교육'과 '초등 교과 연계 마을 교육과정'을 포함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인성원은 재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관광과와 긴밀히 협력해 조성한 교육 공간으로 생태예술 놀이터, 트리클라이밍 교육장, 아티스트 교육장, 밭 놀이터, 자연 휴식 공간 등 다양한 교과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숲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들을 위한 생태 자연 예술 놀이와 초등학생들을 위해선 초등교과 연계 마을 교육과정이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엔 섬진강 트리클라이밍, 리틀아티스트, 밭놀 놀이터 등 총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성원 개발로 자연재해에 취약했던 제철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철성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성원을 관내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곡성의 숲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성원 가족 탐사대와 가족 공감 숲 트리클라이밍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생을 모집한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곡성의 숲 교육장을 활용한 숲 체험과 생태교육 경험을 제공해 건강하고 꿈이 있는 지역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